

## “지역 축하 파티의 명소, Wuyang Casa”



【사진 왼쪽】 Cannella, Allcot, Harrison 세 가족이 모인 파티는 Jeff Cannella 씨 (사진 맨 오른쪽) 의 59 번째 생일과 딸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별도의 룸에서 진행되었다. 부인 (사진 중앙) 은 “집에서는 직접 고기를 굽지 않지만, 이 가게에 오면 다 같이 구워 먹는 재미가 있다” 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. 【사진 오른쪽】 Schnall 가족은 딸 Leah 양 (사진 왼쪽 앞) 이 4 일 뒤 한국으로 단기 유학을 떠나게 되어 송별회를 위해 방문했다. 아버지 (사진 오른쪽 뒤) 는 이 가게를 세 번 이용했다고 한다. “TikTok 에서 보고 알게 됐다. 세 번이나 왔다. 축하 자리는 항상 이곳에서 한다” 고 어머니 (사진 왼쪽 중앙) 가 전했다. 【사진 오른쪽 아래】 Jenine Sparacino 씨 (사진 맨 오른쪽) 의 31 번째 생일 파티는 남편 (옆) 이 준비했다. “Wuyang Casa 는 어때?” 라는 남편의 물음에 “당연히 좋지” 라고 흔쾌히 답했다고 한다. 생일 주인공 Jenine 씨는 “일식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가게” 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. 왼쪽 줄에는 친구 두 명이 자리했다.



## 중·일·한 인기 메뉴 총집합

맨해튼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즐겨 찾던 롱아일랜드는, 최근 통근 시간이 1 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고 있다. 이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.

“아파트는 거의 없고, 대부분이 훌륭한 단독 주택들입니다. 맨해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, 백인 가족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. 중국, 일본, 한국 요리 중에서 백인들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물론 소고기 요리는 미국인들의 소울

푸드이기 때문에, 일본식 야키니쿠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, 채식주의자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채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” 라고 매니저 준씨는 말했다.

- 중국 요리 - 파인애플 볶음밥, 자장면, 궁보계정 (쿵파오 치킨), 야채 볶음
- 일본 요리 - 오니기리 (주먹밥), 미소시루 (된장국), 야키토리 (닭꼬치구이), 야끼우동 (볶음우동), 참치 덮밥
- 한국 요리 - 냉면, 비빔밥, 캐스트 아이언 비프 (무쇠팬 소고기구이), 해물찌개, 갈비탕



맨해튼섬의 두 역, 그랜드 센트럴과 펜 스테이션에서 많은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통근이 편리해짐에 따라, 롱아일랜드에 정착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
사진①: 점포 매니저 명준씨 (32 세). 투자회사에서 주식 운용을 담당했지만, 2년 전부터 “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일로 삼자”고 결심하고 가게 운영을 맡고 있다. 사진②: 가게 외관. 사진③: 3 개국의 맛을 즐길 수 있다. 상단 왼쪽부터 편육젤리 (중국), 무우 (한국), 오이절임 (일본). 소스, 중단 왼쪽부터 매운 마요네즈 (중국), 된장 (한국), 테리야키 (일본). 하단은 기본 안주. 닭꼬치구이 (왼쪽) 와 만두 (오른쪽). 사진④: 15 종류의 고기와 야채가 계단 모양으로 담겨 있어 식욕을 돋운다. 송 씨 가족은 “아내와 딸이 집 외벽 페인트칠을 열심히 해줬기에, 보답으로 야키니쿠로 대접하기로 했다. 도장공에게 맡기지 않아서 야키니쿠 저녁값도 절약됐다” 고 남편이 말했다. 아내는 “외벽 페인트칠을 하느라 배가 고팠는데, 이 가게의 야키니쿠라면 기운이 날 것 같았다. 최고의 기획” 이라며 미소 지었다.